

기념비 건축물의 파괴와 보존의 의지에 관한 연구

-제1차 세계 대전 전후 프랑스와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Destruction and Preservation of Architectural Monuments

-in the Context of World War I France and Germany-

김 영 철*

Kim, Young-Cheol

(배재대학교 주시경교양대학)

Abstract

Architectural Monuments have to overcome the challenge of time due to physical properties. The fundamental issue must be grounded in an understanding of history and art to overcome this challenge and make them sustainable. Many efforts to preserve the monuments through the 19th century and at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to record them in scientific form were successful. To be aware of the meaning of the art and not to be 'barbare' anymore was behind the promotion of these activities. Above all, the 19th-century French architect Viollet-le-Duc contrasted the concept of barbarism with the concept of art and tried to redefine architecture as art. The ritual to escape 'barbar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end. This consciousness was also at work in the propaganda for the preservation of medieval architectural monuments in France, led by intellectuals such as Rodin. Also, the concept of 'barbare' served as an important yardstick whenever the cause of their loss was questioned while important monuments were destroyed in the First World War. From the viewpoint of Germany, Dehio was the pioneer of the preservation movement and documentation of monuments. The principle he advocated was preservation, not restoration. The historian Pevsner, who moved to England, also surveyed monuments in various parts of England and left them in the same format as Dehio. These facts show that architecture as art plays a fundamental role in the history of human life.

주제어 : 기념비, 보존, 근본개념, 야만, 예술, 기록화, 독일, 프랑스, 대성당, 데히오, 클레멘, 랭스

Keywords : Monument, Preservation, Principle, Barbare, Art, Documentation, Germany, France, Cathedral, Dehio, Clemen, Reims

1. 서론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유럽, 특히 프랑스와 독일은 기념비¹⁾ 건축물과 이들의 학문적, 역사적 가치 평가, 그리고 이와 관련한 행정 및 제도를

국가적 관심사로 여겼다. 그리고 이들은 새로운 시대를 위한 결정적 사안이기도 했다. 역사주의의 시대는 저물어가고, 모더니의 이념은 여러 영역에서 실천을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그런데 1914년 제1차 세계 대전은 인류가 오랜 시간에 걸쳐 창조한 건축 기념비의 존재와 효용에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울였던 노력이 단번에 시험대에 오르도록 한 커다란 사건이었다. 그리고 기념비 건축물의 파괴는 보존의 정당성과 보호의 실천에 관련한 인간의 의식과 태도도 또한 질문하도록 만들었다.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우리의 시점에서 과거 사건의 재구성이 갖는 의미는 기념비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 Corresponding Author : kim_yc@pcu.ac.kr

이 연구는 2021년도 10월 대한건축학회 추계학술대회, 대한건축학회(건축자산 및 기록위원회)와 건축공간연구원(건축문화자산센터) 공동 학술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완하여 완성한 논문임. 연구의 계기는 힐튼호텔의 '철거' 논쟁이었고, 그 과정에서 '예술' 개념이 대두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문제 삼았다.

1) 기념비 용어는 독일어 Denkmal의 번역을 따랐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상을 대부분 문화재로 표기해 왔지만, 원어의 직역은 사태와 대상의 속성에 더 가까이 다가갈 장점이 있다고 판단한다.

판단, 그리고 이를 위한 대안들이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한 척도가 될 것이라는 인식이다.

이 연구에서 쟁점이 될 부분은 주로 독일어로 기록된 문헌을 근거로 하고 있다. 특히 랭스 성당의 폭격 사건에 관한 기록물들(1914-1915)이 그렇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독일어 문화권의 입장만 대변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다른 한편으로 보편적 가치를 갖는 근본개념-예술, 역사성, 기념비, 보존 등-이 논지의 중심에 서도록 했고, 특정 문화권의 선호나, 국가적 이해관계는 의미가 없는 것으로 여겼다. 이 근본개념들은 건축적 기념비와 관련한 학문적, 역사적 연구뿐만 아니라, 기념비를 수용할 일반인의 의식에도 관련되는 구조적 사고의 요소로서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역사적 기념비 건축물을 다루는 과정에서 생각할 가치가 있고 필요하다고 할 논리 구조의 성격이다.

2. 19세기의 시대상을 반영하는 예술로서의 건축 정의와 야만성의 극복

2-1. 예술의 정의와 야만성

독일의 건축가 쟈퍼(G. Semper, 1803-1879)의 대표작 『양식론(Der Stil in den technischen und tektonischen Künsten oder praktische Ästhetik, 1860-63)』은 우주의 형상과 그 원리를 먼저 질문하고 이로부터 건축론을 펼쳐나간다. 그에게는 예술로서의 건축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일이 중요했을 것이며, 그 노력의 성과로 공간 주체의 건축을 위한 새로운 길을 열어 주었다.²⁾

쟁퍼의 양식론처럼 일반적으로 건축론은 건축 형식이 어떻게 예술적 탁월함을 보여주는지, 또 예술의 본성과 기원은 무엇인지, 이를 질문하고 이를 근거로 창작의 논리를 규명한다.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을 보편적 성격의 주도적인 생각과 실천의 방식은 시대의 담론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건축론은 예술의 근본개념을 정립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의의를 부여한다.

그런데 프랑스에서 19세기 건축론을 주도했던 비올레르뒤크(E. Viollet-le-Duc, 1814-1879)³⁾는 『건축강의

(Entretiens sur l'architecture, 1863-72)』에서 건축 개념을 정의하기에 앞서 오히려 <야만성(la barbarie)이란 무엇인가?>의 질문을 던졌다.⁴⁾ 그가 야만 개념을 내세우며 강의를 시작할 때, 당시의 현실을 고려한 탓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비올레르뒤크로서는 권위를 갖던 보자르 전통의 예술관 및 건축의 이해와 대립한 상태였고, 그로 인해서 보자르 교수들로부터 공격도 받는 상태였다. 그렇지만, 그의 관점에서 건축이 예술로서 스스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야만성이라는 인간의 의식 상태를 더욱 심각하고 절실한 문제로 여겨 이를 먼저 극복해야만 한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에게 야만의(barbare) 상태는 예술과 대척점에 있는 것이었다. 또한 야만성은 시대를 구분하기 위한 척도였다. 예술이 번영했던 시기와는 반대로 야만의 시기는 예술이 무관심과 심지어 혐오 속에서 매장되어 더 이상 장려되지 않는 시기였다. 따라서 하나의 국가나 시대, 사회는 문명의 발달 상태와 별개로 야만적일 수 있었다. 미개하고 미신적이며, 광적이고, 불규칙하며 충동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뿐만이 아니라, 불완전한 법칙들이 지배하는 상황도 예술과 무관하게 존재할 수 있었다. 그리고 또한 시대가 문명화되고 사회 구성원이 소위 교양을 갖추었다는 것만으로 예술은 충족되지 않는다고 했다. 더 나아가 제도나 행정, 과학이 발전한다고 해서 동시에 예술이 발전하지는 않는다고도 했다. 결국 진정한 야만의 상태는 예술이 예술이기를 멈출 때라고 했다.⁵⁾

이와 달리 그에게 예술은 인간의 영혼이 요구하는 만족을 위한 형식이며 이것의 이상적인 표현이었다.

“나뭇가지로 오두막을 짓는 것은 예술이 아니라, 한낱 물질적 욕구의 충족일 뿐입니다. ... 그러나 ... 벽들과 지주들을 아이의 탄생, 부친이나 아내의 죽음, 적군에 대한 승리와 같은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돌을새김과 기호들로 덮어 가는 것, 이것은 예술입니다.”⁶⁾

그에게 예술은 인간, 또한 한 민족의 삶을 위해 변하지 않는 원리들을 보존하고, 이를 감각적인 형태들로 다시 창조하는 행위들이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실천적

2) 쟈퍼의 양식론은 2권이며, 3권에서 공간론과 건축의 역사를 다룬 예정이었는데, 미완으로 남았다. 쟈퍼의 수용가였던 슈마르조가 이를 완성했다. 『건축창작의 본질』, 1894

3) 비올레르뒤크 인명 표기는 띄지 않고 붙여 쓰는 관례를 따른다.

4) 야만 개념은 프랑스의 사회주의혁명 그룹 “사회주의인간 야만인가(Socialisme ou barbarie, 1949-1967)”에서 다시 등장한다. 『포스트모던의 조건』의 저자인 장프랑스와 리오타르(Jean-François Lyotard)가 이 조직의 회원이었다.

5) Viollet-le-Duc, E., *Entretiens sur l'architecture*, I/II(1863-1872), 정유경 역, 건축강의 1. 파주, 아카넷, 2015, pp.27-30.

6) 같은 책, p.33.

수단과 판단을 위한 취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예술적 민족”이라고 했다. 최고의 장엄함을 창조적으로 보여준 고대 그리스 민족, 그리고 신성함의 추상적 관념을 돌로 해석해서 신의 거처로, 이 돌을 통해 보편적 서사시를 지어낸 프랑스인들이 예술적 민족이었다.

이렇게 정의된 예술 개념은 이제 역사 서술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창조를 위해 “자유롭게 진보의 길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나아가기” 위한 인도자였다.⁷⁾ 건축가들에게 이 정의는 단순한 추상이 아니었다. 오히려 이는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생명력을 갖게 된 원리였고, 건축의 세계는 이를 펼쳐내는 무대가 되었다.⁸⁾

2-2. 시대상의 변화와 기념비의 관리

19세기 프랑스에서 이미 파괴되거나 손상된 건축물, 특히 대성당의 상태는 역사가나 시인들의 중요 관심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설가 위고(Victor-Marie Hugo)가 쓴 『파리의 노트르담(Notre-Dame de Paris)』(1831) 작품을 정점으로 적극적인 복원(Wiederherstellung) 운동으로도 이어졌다. 프랑스 정부도 1837년부터 국가의 차원에서 기념비를 보호하기 위한 조직을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었고, 비올레르뒤크와 같은 건축가들은 이 기념비 관련 활동을 ‘보수’와 이상적 상태의 ‘복원’으로 이해하며 이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노력은 신고전 양식의 표현으로도 이어지게 되었다.⁹⁾

20세기에 들어서며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역사주의의 경향은 쇠퇴해 갔다. 이로 인한 시대상의 변화는 일상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관리에도 영향을 미쳤다. 국가가 이제는 종교와 결별한 상태였기 때문에 대성당의 시대는 더 이상 명맥을 유지하기 어려웠고, 따라서 교회나 성당은 방치될 수밖에 없었다. 프랑스인으로 하여금 커다란 자부심을 갖도록 했던 대부분의 종교건축물은 이제 세속화하는 시대적 분위기로 인해 해당 기능은 물론, 시간의 도전도 이겨내기 어려워 보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화와 문명의 중심지 역할을 자처하고 인정받던 프랑스가 보여준 역사적 기념비의 관

리 현실은 독일의 건축역사가들이나 보존 활동가들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불합리한 상태로 보였다.¹⁰⁾ 프랑스에서 정부는 어느덧 종교의 세계와 거리를 두었고, 종교건축 유산을 보존하는 일에서 정부 기구나 행정은 무관심으로 방치하거나 경우에 따라 적극적인 해체를 장려하기도 했다. 따라서 기독교의 종교 건축은 실질적 기능을 하지 못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유지 관리의 경제적 어려움도 한몫을 하였다. 이 사태는 1차 세계 대전으로 인해 더욱 가속화되었으며, 기념비들의 파괴는 더욱 구체적인 현실로 드러나게 되었다.

3. 기념비 건축물의 보존을 위한 노력과 기록화

제1차 세계 대전은 근본적으로 신제국주의의 양상으로 인해 발발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양상은 기술 및 산업의 고도화와 전술적 교착 상태로 인해 수많은 인명의 손실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축적 기념비에도 커다란 피해를 가져왔다.

전쟁이 일어나기 이전에 이미 기록과 보존을 위한 활동은 존재하고 있었다. 독일 역사가 게오르크 데히오(Georg Dehio, 1850-1932)는 기념비들을 답사하고 이들을 기록으로 남기는 일에 헌신했고, 1900년도에는 기념비보호의 날(Tag der Denkmalpflege)을 제정해서 중요한 역사적 건축물의 제도적 보호와 보존의 길을 열어 주었다.

프랑스는 이미 1837년 역사 기념비 위원회(Commission des monuments historiques)를 통해 건축 기념비의 보존과 복원 및 현황의 기록화를 단행했다. 중세 유산의 중심지이기도 했고, 많은 기념비의 관리도 필요했다. 그 과정에서 새로 발명된 사진기도 활용되었다. 그래서 사진을 통한 기록화 방식(Mission héliographique¹¹⁾)은 실측 측량 기법보다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양의 결과물을 축적할 수 있었다. 그런데 사진으로 남겨진 성과물을 활용하려는 의지는 희박했다. 이들은 대개 행정부서의 서고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건축역사가였던 율리우스 바움(Julius Baum)이 이들을 찾아서 책으로 출판하면서 반세기 만에 다시 빛을 보

7) 같은 책, p.66.

8) 비올레르뒤크의 건축관을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수용한 건축가는 네덜란드의 베를라헤, 독일의 미스 반 데어 로에였다. 참고. 헨드릭 페트루스 베를라헤, 『건축예술과 양식』, 김영철, 우영선, 김명식 옮김, 파주, 아카넷, 2021.

9) Waetzold, W., *Der Begriff des "Barbarischen"*, in: Kunst und Künstler, Vol. VIII, 1915, Juli. p.441.

10) 게오르크 데히오 외에도 본 대학교 교수였던 파울 클레멘 교수는 프랑스 전역의 기념비보호에 관한 연구로 이미 주목을 받고 있었다. Clemen, P., *Denkmalpflege in Frankreich*, Berlin, Ernst & Sohn, 1898.

11) 이 임무는 세 사진가가 맡았고, 소재지에 파견되어 사진으로 기록을 남겼다고 한다. 배리 버그돌이 기록한 이 내용의 출처: 김종성, 『로마네스크건축』, *Early Medieval and Romanesque Architecture. Photo Essay*, France. Berlin, Wasmuth & Zohlen, 2022, p.8.

게 되었을 정도로 빈도수는 적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책은 로마네스크 건축의 역사적 연구에 크게 기여를 했다.¹²⁾

3-1. 데히오

건축예술을 민족 개념에 근거해서 논할 때 독일의 19세기 사정은 특이한 면들을 보여준다. 1806년 나폴레옹의 프로이센 침공, 피히테가 인간적 자유의 실현을 목적으로 행한 『독일 국민에게 고함』 강연(1808), 베를린 대학의 설립(1810) 등은 민족 개념에 대한 새로운 의식을 요구했고, 선진 프랑스로부터의 의미와 가치를 다시 해석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100년의 역사는 특히 건축과 관련하여 역사적 기념비의 성격을 규명하는 새로운 방식을 보여주었다.

예술사가였던 게오르크 데히오(Georg Dehio)는 <사적보호의 날>을 제정했을 뿐만 아니라, 그 기념을 시작으로 독일어권에 있던 역사적, 예술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과 조형물을 조사하고 목록화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이 성과를 『독일 예술기념비 핸드북(*Handbuch der Deutschen Kunstdenkmäler*)』 제목으로 이들을 출간하기 시작했다. 이후에도 이 활동은 이어져서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폴란드까지 포함하며 1905년 첫 권이 세상의 빛을 보게 된 이후, 독일 전역을 위한 24권, 오스트리아에 해당하는 16권, 폴란드 영역의 5권이 출간되었다. 이 기념비적인 업적을 통상 데히오라고 부른다. 데히오의 사후에도 이 기록화 활동은 이어졌다. 그리고 그가 내세운 원리, 곧 “보존할 것(konservieren), 복구하지(restaurieren) 말 것”이라는 원칙은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¹³⁾ 이 기록화 과정을 통해서 독일은 19세기까지 이룬 민족적 성취를 자세히 보여주었고, 그 완성뿐만 아니라 이후의 변화, 위조의 상태도 함께 보여주었다. 데히오의 영향은 1964년 “베네치아 헌장(Charter von Venedig)”으로도 이어졌다. 그리고 이 이전에도 그의 영향은 컸다. 영국으로 이주한 건축역사가 펄스너(N. Pevsner)는 데히오의 원칙을 이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오랜 기간의 성과 『잉글랜드의 건축물(*Buildings in England*)』 저술을 펴냈다. 여기에서

도 데히오의 실천 방식과 그 원리를 다시 볼 수 있다. 그가 주도해서 1951년부터 1974년에 걸쳐 46권의 잉글랜드의 기념비의 기록화 업적을 이루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형식 - 곧 지도로부터 시작한 기념비 서술의 방식과 판형의 크기, 분량과 형태도 데히오 판과 같다. 차이가 있다면, 데히오에는 도면이 있지만 펄스너에는 사진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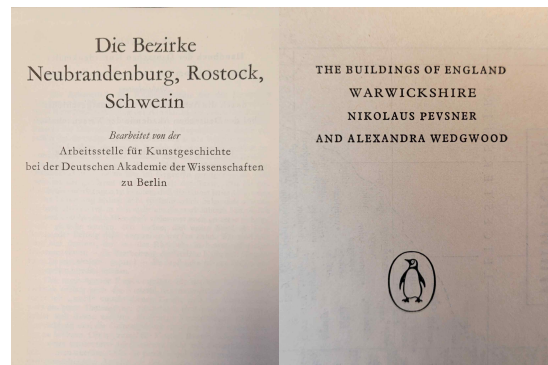


그림 1. 왼쪽: 데히오, 『독일 예술기념비 핸드북(*Handbuch der Deutschen Kunstdenkmäler*)』, 1967

오른쪽: 펄스너, 『잉글랜드의 건축물(*Buildings in England*)』, 1966

데히오의 원칙은 “시간이 앗아간 것을 신기루와 같은 상(Trugbild)으로 대체하려는 것은 역사가 가진 경건(Pietät)의 의미와 상반되는 행위”라고 했다.¹⁴⁾ 그리고 당시의 기념비를 다루던 관행에 대한 의구심이 그의 출발점이었다.

당시에는 1693년 프랑스군에 의해 파괴된 하이델베르크 성의 복구를 둘러싸고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 그리고 불완전하게 전승되어 온 상태를 역사주의(Historismus)의 정신에 근거해 하나의 새로운 이상형으로 재창조하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그때는 쾰른 대성당이 13세기부터 건축되었지만 중단되어 오랫동안 폐허의 상태로 남았었고, 결국 이를 극복하고 완성된 대성당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던 시점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결정적인 계기는 소실된 것으로 여겨진 서측 입면도를 1816년에 되찾은 사건이었다. 이를 토대로 쾰른 대성당은 1880년 완공되었다.

그런데 이 복원의 논리에 대항해 데히오가 내세웠던 보존의 논리는 오히려 큰 반향을 얻었다. 데히오는 이미 쾰른 대성당의 건축 과정에 참여한 여러 인물, 곧 괴테(Johann Wolfgang von Goethe), 쉐켈(Karl Friedrich Schinkel), 특히 프랑스의 비올레르뒤크의 견해도 파악하고 있었다. 비올레르뒤크는 다음과 같이 주

12) Baum, J., *Romanische Baukunst in Frankreich*, Stuttgart, Hoffmann, 1910. 내용의 출처: 김종성, 『로마네스크건축』, 2022, p.8.

13) Schulz, B., *Pflegen bringt Segen*. in: Tagesspiegel, 1. August 2005, p.23.

14) Schulz, 같은 곳

장하고 있었다.

“건축물의 복원은 건물을 보존하거나 보수, 재건축하는 것이 아니다. 일찍이 어떤 시대에도 존재한 적이 없는 완벽한 상태로 보여주는 것이다”¹⁵⁾

그러나 영국의 비평가 러스킨(John Ruskin)의 생각은 비올레르뒤크와 달랐다.

“건축적으로 위대했던, 혹은 아름다웠던 것을 복원한다는 것은 죽은 사람을 되살리는 것만큼 불가능한 일이다. ... 복원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말도 하지 말자.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거짓말이다. ... 내가 믿고 있는 원칙은 마치 성 오웬의 대수도사들처럼 석공들이 자신들의 일을 천직으로 여기며 일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프랑스에서는 시장들에 의해 이 원칙이 땅에 내동댕이쳐지고 있다. 이들 도시의 시장들은 몇몇 부랑자들에게 작업을 맡기는 관행을 저지르고 있다. 이로 인해 이러한 원칙은 무시되고 있다. 여러분이 기념물들을 처음부터 적절히 관리한다면 복원할 일도 없을 것이다.”¹⁶⁾

19세기를 주도했던 이 생각들과 그 배경을 파악하고 있던 데히오는 역사적 관점에서 새롭게 기념비의 정의를 물었다.

“인류가 지금까지 일구어 왔고 드러내서 보여주어야 할 정신적 가치들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앞으로도 지속하도록 할 수 있을까?”¹⁷⁾

그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1905년부터 시작한 그의 핸드북에 하나의 형식(건축물의 탄생, 기능, 가치와 역사적 사실들, 실측도면)으로 기록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 성과가 쌓여가던 중, 이 기념비들은 새롭게 제1차 세계 대전이라는 파괴적인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 사건은 기념비 개념의 정의를 가치의 측면보다는 중성적이고 양적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이렇게 변화한 상황에서 데히오의 노력과 성과가 보여준 특징은 기록물을 통해서 읽어 낼 수 있는 사실들은 파편화되어 있고, 여러 층위에 걸쳐 있는 기념비의

물리적 성격(Denkmalcharakter)도 기대할 만한 가치의 상으로서의 전체를 보여주지도, 해명하지도 못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게 되었다.

“기념비는 그 자체로 현존하지 않는다.(Ein Denkmal 'ist' nicht.)”¹⁸⁾

이 주장이 타당하다면, 오히려 기념비는 어떤 의미가 그 대상에 기록되는 한 존재할 수 있고, 또 여기에 부여된 의미들이 보존되며, 이 의미들이 다시 수용자에게 받아들여지는 과정에서 비로소 기념비로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이 목적을 위해 데히오는 일생을 바쳤다. 그가 기념비들을 찾아가 실측하고 기록하는 과정에서 했던 질문은 역사의 의미를 묻는 것이기도 했다.

“폭력이 우리가 이론 예술과 기념비들을 파괴하려고 들 때, 이에 맞서 이들이 현존할 기간을 단 몇 시간만이라도 늦출 수는 없을까?”¹⁹⁾

이 질문은 단순하고 소박해 보이기까지 한다. 그러나 이는 우리가 역사적 기념비의 존재 앞에서 그 의미와 가치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그 핵심에 닿아 있는 질문이기도 하다. 그리고 또 기념비가 기념비로 파악되는 상태에서만 기념비가 보존될 수 있다는 사실도 상기시켜준다.

3-2. 제1차 세계 대전과 전쟁 이전 프랑스의 기념비 보존 행정

1914년 제1차 세계 대전에서 독일군의 프랑스 침공은 문화재의 파괴라는 손실 외에도 특히 프랑스 민족의 자긍심, 예술작품의 의미, 기념비의 관리와 보존의 문제들을 공론장에 제기했다. 유럽의 여러 국가 가운데 프랑스는 오랫동안 예술과 문화의 척도이자 존엄의 가치를 차지한 곳이었다. 그러나 전쟁의 상황에서 프랑스가 전통적으로 가졌던 이 미덕은 커다란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특히 프랑스 정부는 이 도전에 긍정적으로 반응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이를 무시한 처사라고 할 일들이 전쟁 중에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프랑스에서 중세의 기념비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작품으로 여겨진(대성당의 여왕, Königin der Kathedralen)

15) Kurtich, J., Eakin, G., *Interior Architecture* (1995), 김주연 외역, 『실내건축의 역사』, 서울, 시공사, 2008, p.27.

16) Ruskin, J., *The Seven Lamps of Architecture* (1849). New York, The Noonday Press, 1961, pp.184-186. 재인용. 앞의 책, p.28. (국역 일부 수정)

17) Schulz, B., *Pflegen bringt Segen*. in: Tagesspiegel, 1. August 2005, p.23.

18) 같은 곳.

19) 같은 곳.

랭스(Reims) 대성당은 전쟁이라는 폭력에 그대로 노출 되도록 하는 불합리를 보여주었다. 랭스 대성당은 이미 파괴의 가능성이 예견된 상태임에도 프랑스군은 독일군의 공격을 앞두고 이 중요한 기념비를 오히려 방어 의 도구로 활용한 것이었다.



그림 2. 1914년 제1차 세계 대전 당시 랭스 성당의 폭격
(출처: “Collier’s New Photographic History of the World’s War” (1919), p.86. https://de.wikipedia.org/wiki/Kathedrale_von_Reims 재인용)

전쟁 이전에도 이미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역사적 기념비들의 관리 문제는 소홀히 다루어졌다. 그리고 전쟁과 같은 재앙의 순간에서 벌어질 파괴를 적극적으로 막을 조처에 관해서도 정부나, 민간은 오히려 소극적이었다. 아카데미 프랑세즈(Académie française)의 회원이자 정치가였던 모리스 바레스(Maurice Barrès)는 『프랑스 교회의 슬픈 운명(*La grande pitié des églises de France*)』²⁰⁾ 제목의 저서에서 프랑스 정부는 이미 전쟁 이전부터 교회 건축물들이 파괴되거나 철거되도록 법규 조항을 마련했고, 이를 통해 소멸된 기념비들의 여러 증거를 제시하며 이 파괴 행위들에 대해 격렬한 반대의 의사를 표현하였다.²¹⁾ 과거 프랑스의 영예를 차지하던 대성당들이 이제는 마치 고아와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고 한탄했다.²²⁾ 그 배경은 무엇보다도 교회와 국가가 더 이상 화해하지 않고 오히려 분리되었으며, 행정부의 주체도 반교회의 성향이였다. 그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마찬가지였다. 더욱이 법규의 조항은 안전조치를 명목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20) 이 책은 1913년 출간, 일 년이 지난 1914년에는 37판을 거듭할 만큼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었다.

21) Hg. Grautoff, O., *Kunstverwaltung in Frankreich und Deutschland*, Bern, Akademische Buchhandlung von Max Drechsel, 1915, p.11.

22) 같은 곳.

“교회 건축의 경우, 자산의 소유자인 지자체는 이를 보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의무로 규정하지는 않는다. 지자체는 이 건축물들을 보존하기 위해 아무런 지출을 하지 않겠다는 결정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건축물의 상태가 지나치게 나쁜 경우에는 그 본연의 기능을 배제할 수도 있다. 그리고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이를 철거할 수도 있다.”²³⁾

이미 이 법규 조항과 조처에 대해 바레스는 1909년에 예견된 교회 건축의 처참한 운명을 악몽과 같은 상황에 비유했다.

“도대체 이 규정으로 인해 이득을 보는 주인은 누구인가? 다름 아닌 어리석음이다.”²⁴⁾

바레스와 의견을 나누었던 프랑스의 지성인은 다수였다. 조각가이자 『프랑스의 대성당(*Les Cathédrales de France*)』의 저자였던 로댕(Auguste Rodin)도 여기에 포함되었다.²⁵⁾ 그리고 바레스는 적극적으로 문화재의 손실이 프랑스의 역사뿐만 아니라, 프랑스 정신의 손실이기도 하며 결국은 몰락에 이르게 된다는 논리를 펼쳤다.

그는 구체적으로 그리지 스위스(Grisy-Suisnes)의 시장이 기념비를 매각하고 교회 건축을 철거하려는 현실 사태에 대해 중앙 정부가 조처해 줄 것을 서한으로 요청하였다. 그러나 의회 의원이던 헨리 코친(Henry Cochin)은 그리지 스위스 성당은 “예술사적으로 가치가 없다. 그러므로 철거로부터 구해내려는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했으며, 고고학 위원회(Répertoire archéologique du département de l’Yonne)에서도 이 같은 방식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답했다. 더 나아가 이 지역의 여러 다른 교회들도 철거되었거나 철거의 대상이라고 알려졌다.²⁶⁾ 용강(Yonne) 지역에 속한 노에(Noe),

23) 같은 책, p.12. 이 책의 저자 오토 그라우토프는 예술사가로 1876년 독일의 북부 도시 뤼베크(Lübeck)에서 태어났고 1937년 프랑스 파리에서 세상을 떠났다. 푸생(Nicolas Poussins)에 관한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예술학 분야의 여러 저서 외에도 독일과 프랑스의 문화 교류에 앞장섰다. 그가 주도해 베를린에서 양국 교류의 여러 양상을 알리는 월간지 *Deutsch-Französische Rundschau*(1928-1933)를 발행했다. 제1차 대전 당시(1914-1915) 그는 프랑스와 벨기에, 독일의 기념비 파괴의 양상들뿐만 아니라, 이들의 보호와 관리, 행정 사안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었다. 이 사건에 관련한 당시의 여러 지식인의 저술과 비평을 하나로 모아 동료 예술학자 빌헬름 베트졸트(Wilhelm Waetzold, 1880-1945)와 함께 1차대전 중이던 1915년에 스위스 베른에서 책으로 펴냈다.

24) 같은 책, p.12.

25) Arsene Alexander, Jacques Doucet, Raymond Koechlin, Henri Guilbeaux, Louis Reau, Jacques Schnerb 등이 여기에 속했다.

생 모리스 티주아이(Saint-Maurice-Thizouaille), 아르토네(Arthonnay), 그리고 멜리제(Melisey)가 여기에 속했다.

조각가 로맹도 프랑스 국가의 기념비 보존에 관한 바레스와 같은 가치를 내세웠다. 『프랑스의 대성당』에서 그는 현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우리나라의 대성당 절반은 이미 퇴락했다. 그리스도 이미 사지가 절단된 상태이지만 자신의 고통과 상처를 숨기지는 않았다. 프랑스는 이제 모욕을 당했고 명예는 훼손되었다. 돌로 지은 화려한 의상의 고딕 건축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길목에서도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그렇지만, 이제는 갈기갈기 찢긴 상태로 하나하나 고물상으로 옮겨지고 있는 상태인데, 그 누구도 이 사태에 대해 놀라워하거나 애달프게 여기지도 않고 있다.”²⁶⁾

“프랑스인들은 한때 민족의 명예의 왕관이라고 자랑하던 아름다운 보물들을 이제는 적을 대하듯 다룬다. 이를 막겠다고 나서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증오의 감정에서, 어리석음에서, 편협한 생각에서, 이들을 때려 부수고 망가뜨리고 있다. 혹은 이들을 보수하겠다는 명목으로 오히려 이들에게 옥보이기까지 하는 실정이다.”²⁸⁾

3-3. 제1차 세계 대전의 기념비 파괴와 야만성의 주체에 관한 논쟁

그러나 로맹의 탄식은 단지 프랑스인의 행태에 국한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의 비난은 1914년 9월 랭스 성당에 폭격을 가했던 독일군에게도 향했다. 그와 함께 조각가 알베르 바르톨로메(Paul-Albert Bartholomé), 소설가 아나톨 프랑스(Jacques Anatole François Thibault), 화가 클로드 모네(Oscar-Claude Monet), 음악가 클로드 드뷔시(Claude Debussy), 카미유 생상스(Charles-Camille Saint-Saëns) 등은 한목소리로 랭스 성당의 파괴의 주범으로 독일을 공공연하게 비난하였다. 군사적 대치 상황에서 독일군의 포격으로 랭스 대성당이 입은 상처는 지붕의 화재, 중탑의 손상, 조각

작품들의 파손 등이었다.²⁹⁾

독일에서 문화재의 보존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던 본(Bonn)대학교의 교수 파울 클레멘(Paul Clemen)이 누구보다 먼저 전투 직후 그 현장에 가서 파괴의 상태, 그 원인 등을 파악하였다. 독일 언론을 통해 발표한 내용을 따르면³⁰⁾ 손상의 범위는 복원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니었다고 했다. 그리고 폭격의 원인도 역사적 기념비를 사용한 프랑스군의 방어 전략에 기인한다는 것이었다. 독일군으로서도 프랑스군이 랭스 대성당을 방어용 기지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면 공격할 이유가 없었고, 무엇보다도 헤이그 조약³¹⁾을 어기고 프랑스군이 중요한 역사적 기념비를 방어의 막으로 삼은 것뿐만 아니라, 서측 종탑을 감시 초소로 사용하며 전기 조명을 설치한 것도 독일군 측의 포격을 자초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프랑스와 독일뿐만 아니라, 영국의 지성인들까지도 가세하여 랭스 대성당의 포격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프랑스와 영국은 독일의 공격을 야만성에 부합하는 처사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독일은 역사적 기념비의 보존에 가치를 두었다고 했고, 이를 위해 민간 기구까지 노력을 기울인 점을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항변하였다. 그리고 전쟁의 상황에서 인간의 생명(군인)과 기념비의 가치(성당)의 우위를 비교할 때, 무엇보다도 인간의 생명이 우선한다는 점도 표명하였다.

결과적으로 프랑스로서는 군사 지휘부의 판단으로 인해 민족의 자존심을 대표하던 대성당 일부를 잃었고, 클레멘이 비유적으로 표현했던 것처럼, 독일로서는 전쟁으로 인해 자신이 키워나가려고 했던 젊은 괴테, 젊은 베토벤을 잃었다. 그리고 이 두 나라 사이를 오갔고, 예술과 문화의 척도를 재던 야만성의 개념은 프랑스의 ‘지성인들’에게서 ‘독일군’에게, 독일의 ‘예술학자들’에서 다시 프랑스의 ‘정부 관료들’에게 던져지고 있었다.

26) 같은 책, p.16.

27) Rodin, A., *Les Cathédrale de France*, Paris, Armand Colin, 1914, p.7, 재인용. 같은 책, pp.20-21. 로맹의 책은 독일어로도 번역되었다. 1917년 막스 브로트(Max Brod)의 번역(Auguste Rodin, *Die Kathedralen Frankreichs*, Leipzig, Kurt Wolff, 1917)으로부터 시작해서 1920년, 1930년 (아르투어 자이프하르트(Arthur Seiffhart) 번역, 베를린의 Axel Junker 출판), 1935년, 1941년에 재발행되었고 최근 1996에도 다시 발간되었다.

28) Rodin, A., *Les Cathédrale de France*, 1914, p.7, 재인용, 같은 책, p.22.

29) 이 보고는 프랑스에서 온 것이 아니라 독일측의 주장이기 때문에 일방적이다. 랭스 성당이 이미 부상자 병동으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한다.

30) Norddeutsche Allgemeine Zeitung, 16. Juni 1915, 재인용. 같은 책, pp.83-85.

31) 1907년 체결된 헤이그조약: “군사 주둔과 총격의 경우, 종교활동, 예술, 학문, 그리고 복지의 목적을 가진 건축물, 역사적 기념비, 병원 등은 가능한 한 보호되어야 한다. 단, 이 시설이 전시점에서 동시에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한한다.” 출처: Grautoff, 1915, p.86.

5. 결론

건축의 기념비는 물리적 속성의 형식으로 인해서 시간의 도전을 이겨나가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전을 극복하고 지속성을 갖도록 하는 노력은 역사와 예술의 이해에 바탕을 둔다. 19세기를 거치며 기념비들을 보존하고 기록으로 남기려는 노력은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데히오가 여러 기념비를 기록하고, 그 가치를 알리기 시작했을 때, 그가 내세웠던 원칙은 보존이었다. 독일 어권에서 이제 그의 이름은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명사가 되었다. 그의 생각과 활동이 단지 하나의 사건에 머물지 않고 오히려 후대에 더욱 넓혀져 이어져가고 있다. 영국으로 이주해 간 역사가 펍스너도 영국의 여러 지역에 있던 기념비 건축물들을 조사하고, 실측해서 데히오와 같은 형식의 기록으로 남겼다.

이런 활동 추진의 배경에는 한편으로는 예술 개념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야만성 개념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19세기 프랑스 건축가였던 비올레르뒤크는 야만성의 개념을 예술 개념과 대비시켰고, 그로부터 예술로서의 건축을 새롭게 정의하려고 했다. 야만성을 벗어나려는 의식은 결과적으로 중요한 몫을 했다. 로맹과 같은 지식인이 주도한 프랑스의 중세 건축 기념비의 보존 활동에서도 이 의식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다른 사례의 하나로 제1차 세계 대전 당시 중요한 기념비 건축물들이 전쟁으로 파괴된 상태에서 이 손실의 원인을 물을 때마다 야만성의 개념은 중요한 척도로 작용했다.

이들 사실을 되새겨 본다면, 이들은 모두 역사와 예술이 함께 인간의 삶을 위해 근본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우리 건축의 현실을 보면 건축물 기념비의 보존과 관련하여 외적 도전의 이름은 더 이상 전쟁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개발’이라는 이름이 자연스럽게 거론되는 현실이다. 그의 의도와 그 결과가 미칠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주제는 과거의 전쟁 개념과 다르지 않다. 전쟁에 사용되었던 파괴의 폭탄을 오늘날에는 기념비적 건축물에 들이대는 포크 레인이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상황에서 누구도 예술이라는 이름을 거론하며 그 가치를 지키는 일을 필요하다고 여기지 않고, 더군다나 역사성이라는 삶의 원리도 도외시 되고 있다.

역사적 기념비 건축물이 어떤 가치를 갖는지, 이를

보존하는 일은 여전히 장애에 맞서 있다.

흔히 하는 표현처럼 과거가 미래를 보장하지만, 역사적 가치의 이해가 외면되고 있는 상태에서 미래는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도 부정하기 쉽다.

본 논문은 이 현실의 상황을 의식하고 기념비 건축의 보존이 역사적 맥락에서 제도적 장치를 확보해야 할 필요성, 그리고 이를 위한 근본개념-예술과 야만성-을 드러내어 이 사안의 내용을 더욱 명료하게 하고, 각 주체의 실천에 의미를 부여하려고 했다.

참고문헌

1. Baum, J., *Romanische Baukunst in Frankreich*, Stuttgart, Hoffmann, 1910.
2. Clemen, P., *Denkmalpflege in Frankreich*, Berlin, Ernst & Sohn, 1898.
3. Grautoff, O. (Ed.), *Kunstverwaltung in Frankreich und Deutschland*, Bern, Akademische Buchhandlung von Max Drechsel, 1915.
4. Kurtich, J., Eakin, G., *Interior Architecture* (1995), 김주연 외 역, 『실내건축의 역사』, 서울, 시공사, 2008.
5. Rodin, A., *Les Cathedrales de France*, Paris, Armand Colin, 1914, 독역: *Die Kathedralen Frankreichs*, Übers. von Max Brod, Leipzig, Kurt Wolff, 1917.
6. Ruskin, J., *The Seven Lamps of Architecture* (1849). New York, The Noonday Press, 1961.
7. Schulz, B., *Pflegen bringt Segen*. in: Tagesspiegel, 1. August 2005.
8. Viollet-le-Duc, E., *Entretiens sur l'architecture*, I (1863), 정유경 역, 『건축강의』 1. 파주, 아카넷, 2015.
9. Waetzold, W., *Der Begriff des "Barbarischen"*, in: *Kunst und Künstler*, Vol. VIII, 1915, Juli, pp.437-441.

접수(2022. 10. 21)

게재확정(2022. 10. 31)